



참. 소개하지요.

이쪽은 '겔츠' 부총독.  
저쪽은 전투함 제조  
공장 사장 '부르버' 씨

반갑소.

오시느라  
수고하셨소.

그리고 이 아가씨는  
유능한 비밀 첩보원  
존 랜든' 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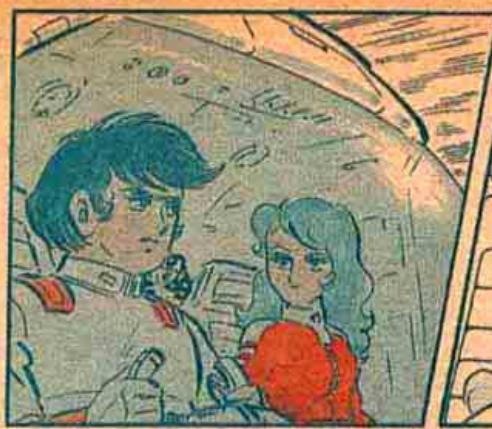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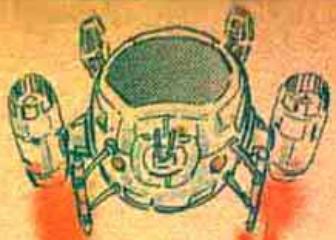


이곳에서도 우주 제왕  
이란 자의 정보가  
신통치 않은  
모양이군요?

예. 이곳 원주민  
'이니샤' 인의 옛 도시에  
자주 나타난다는 것  
밖엔...

우선 원시병의  
원인부터  
밝혀내는 게  
순서 아닐까요?





캡틴, 아직 아무 것도  
모르는 것 같은데.  
총독 관저에서는  
왜 큰소리를 쳤죠?

기이잉

그래야만 그 자가  
덤벼 들어서  
무언가 해결점을  
찾을 것  
아니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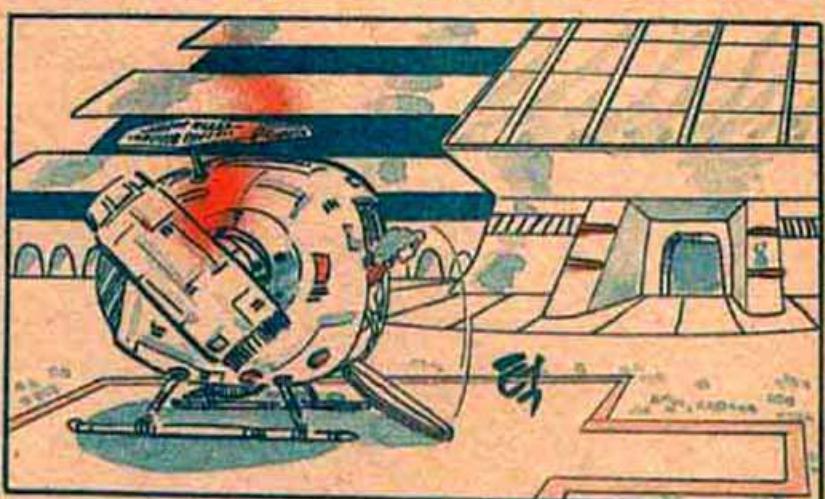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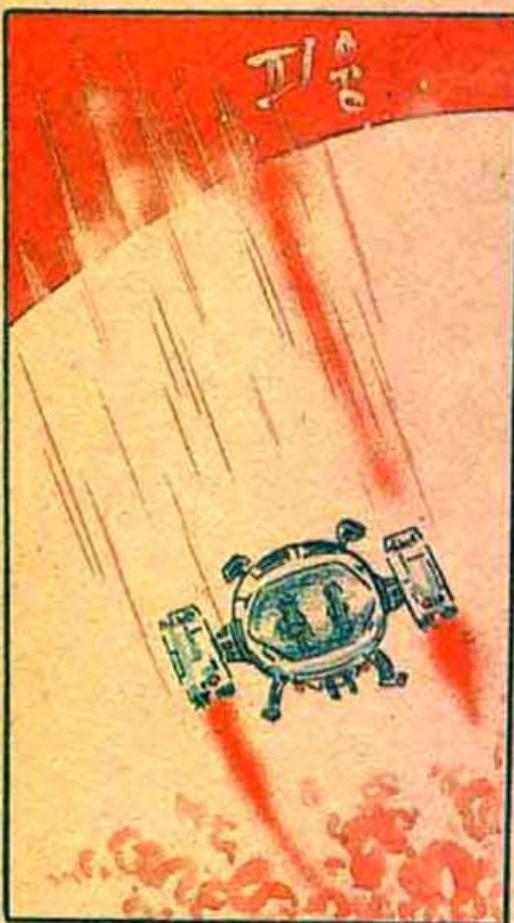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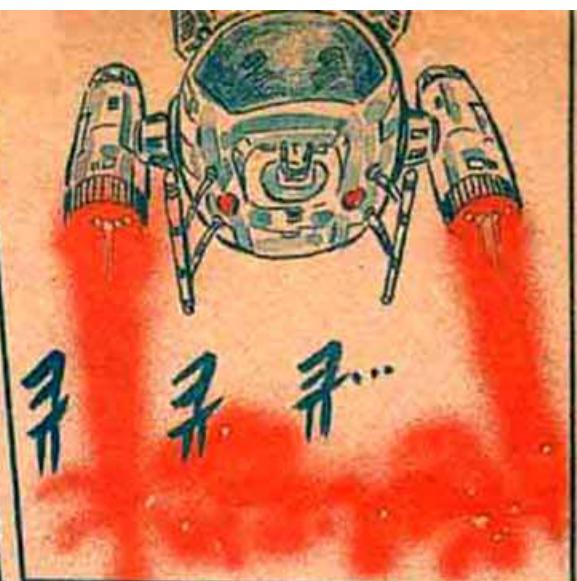
총독 관저 내에  
스파이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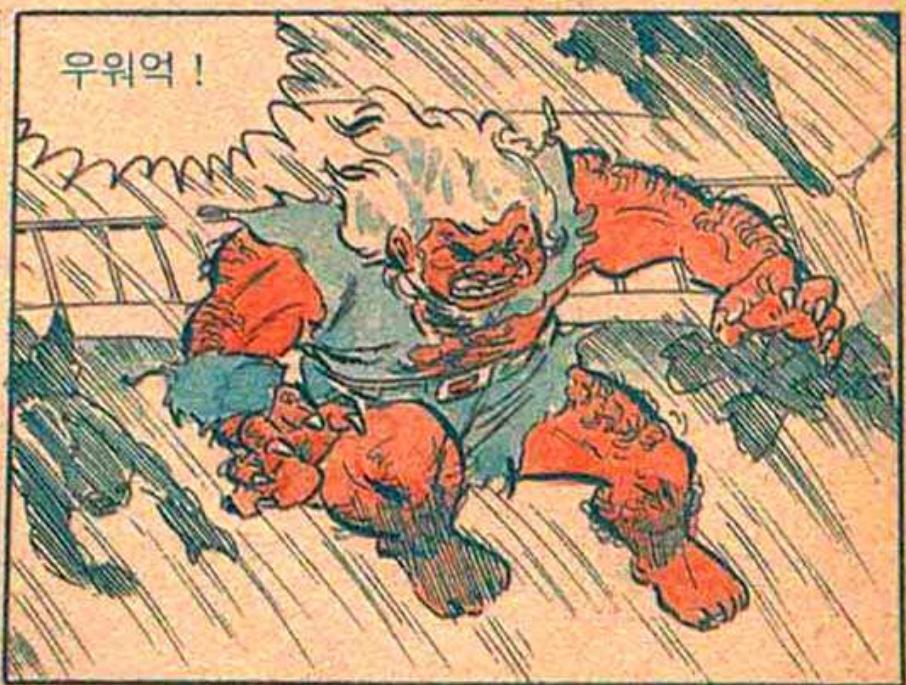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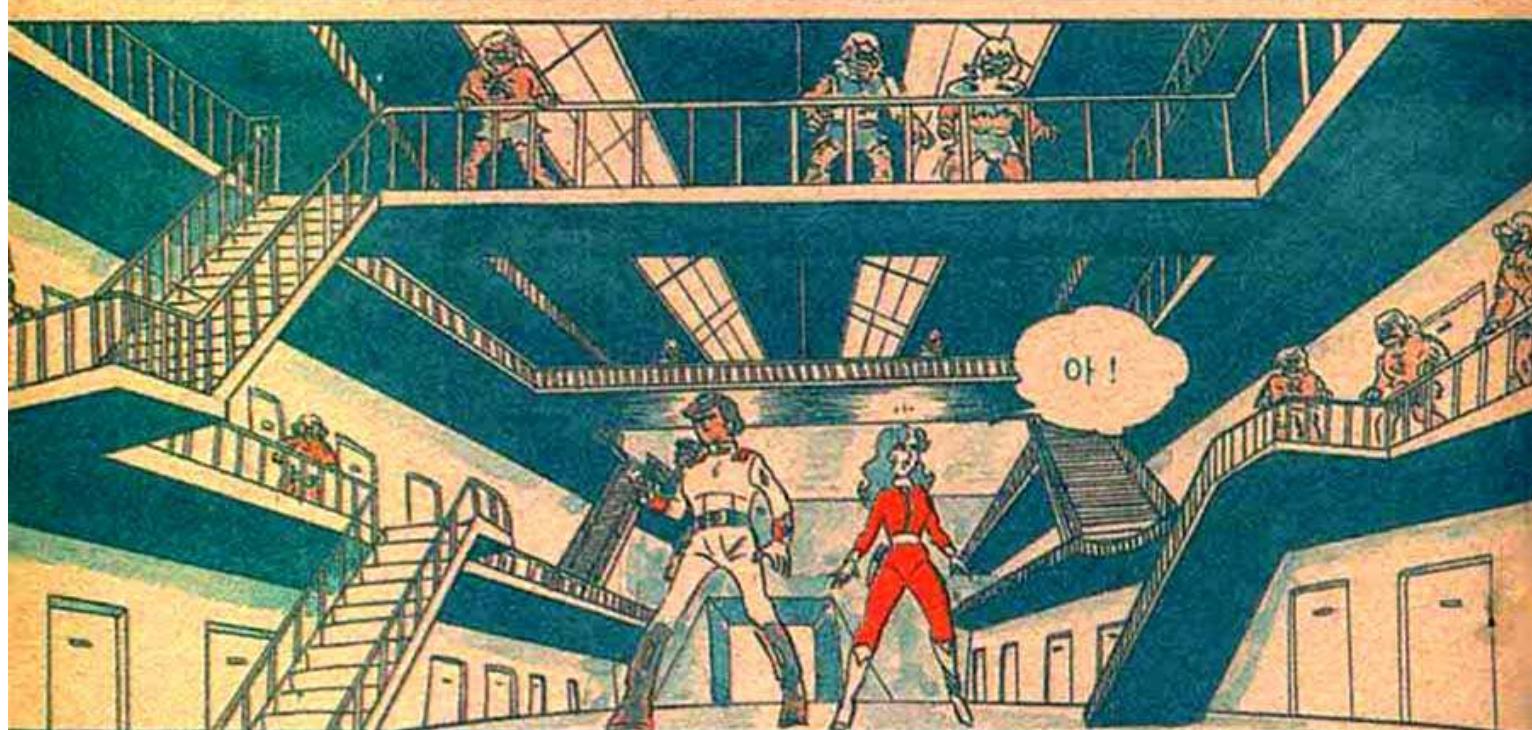
흔히 쓰는  
수법이  
아닐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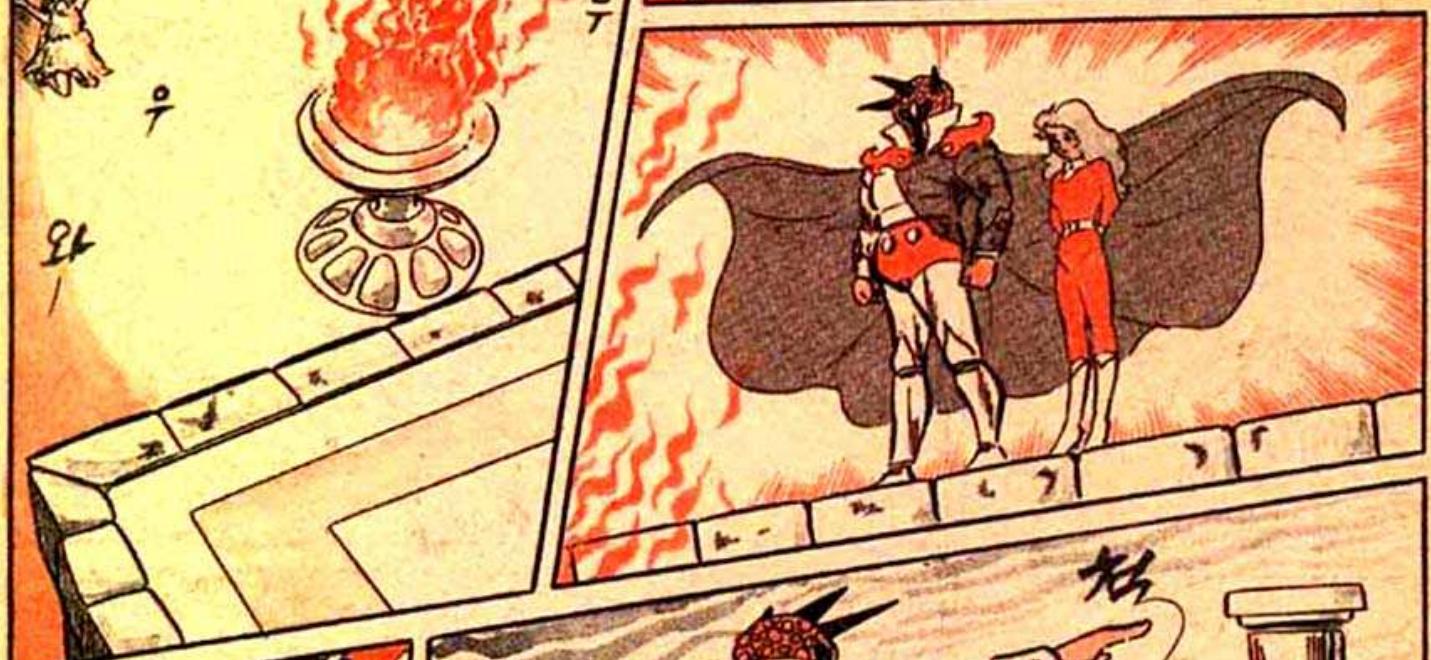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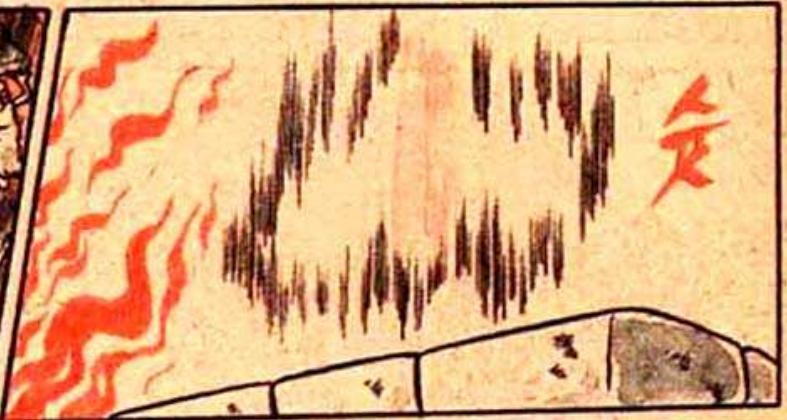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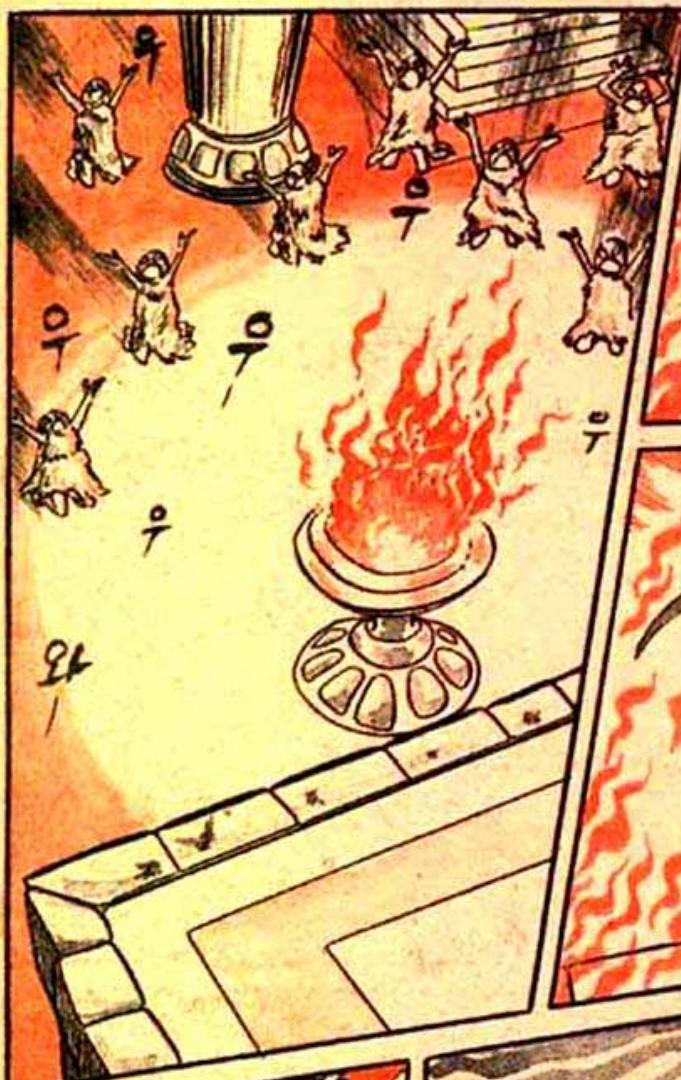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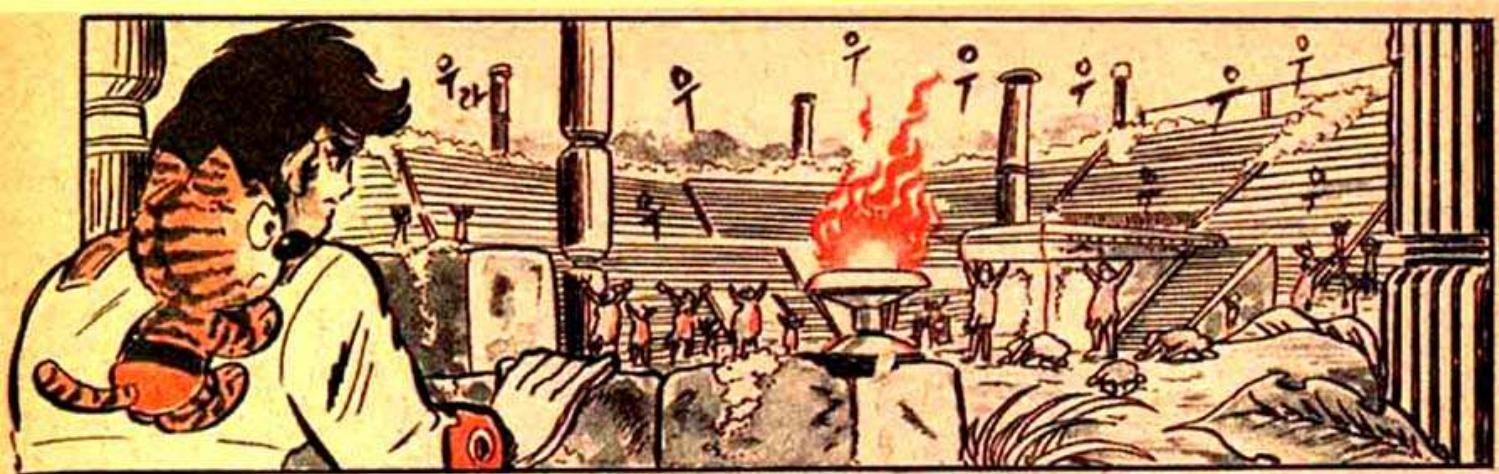


호... 에너지  
스크린으로 막아  
놨군.











우리의 결전이  
승리할수 있도록  
이니샤 신에게  
기도드리자.

이 때다.

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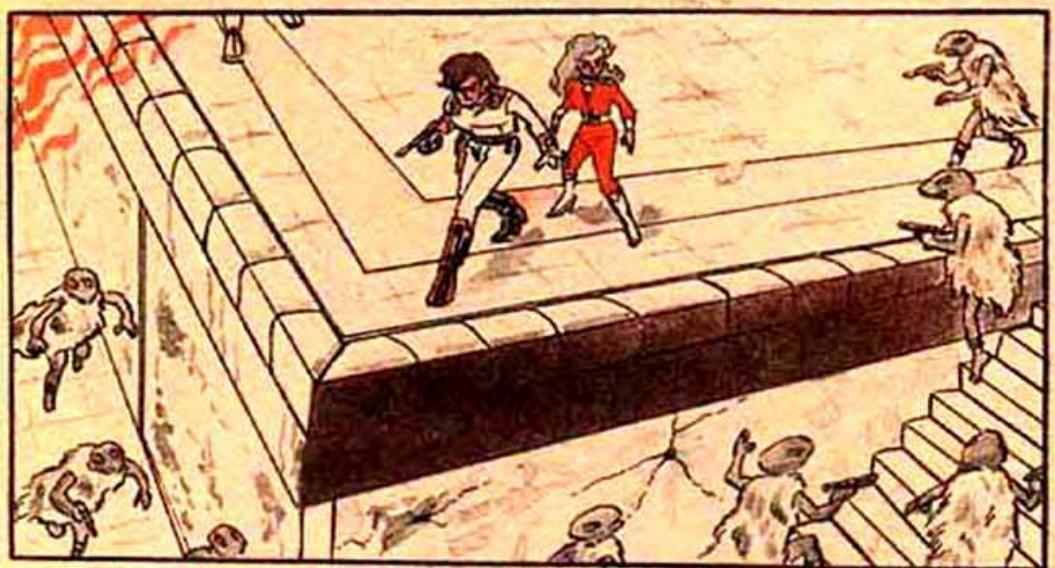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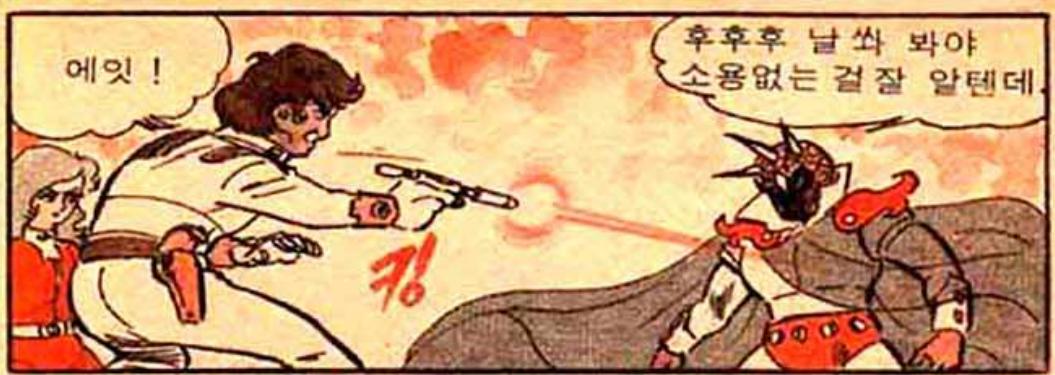
쉿! 나  
캡틴 휴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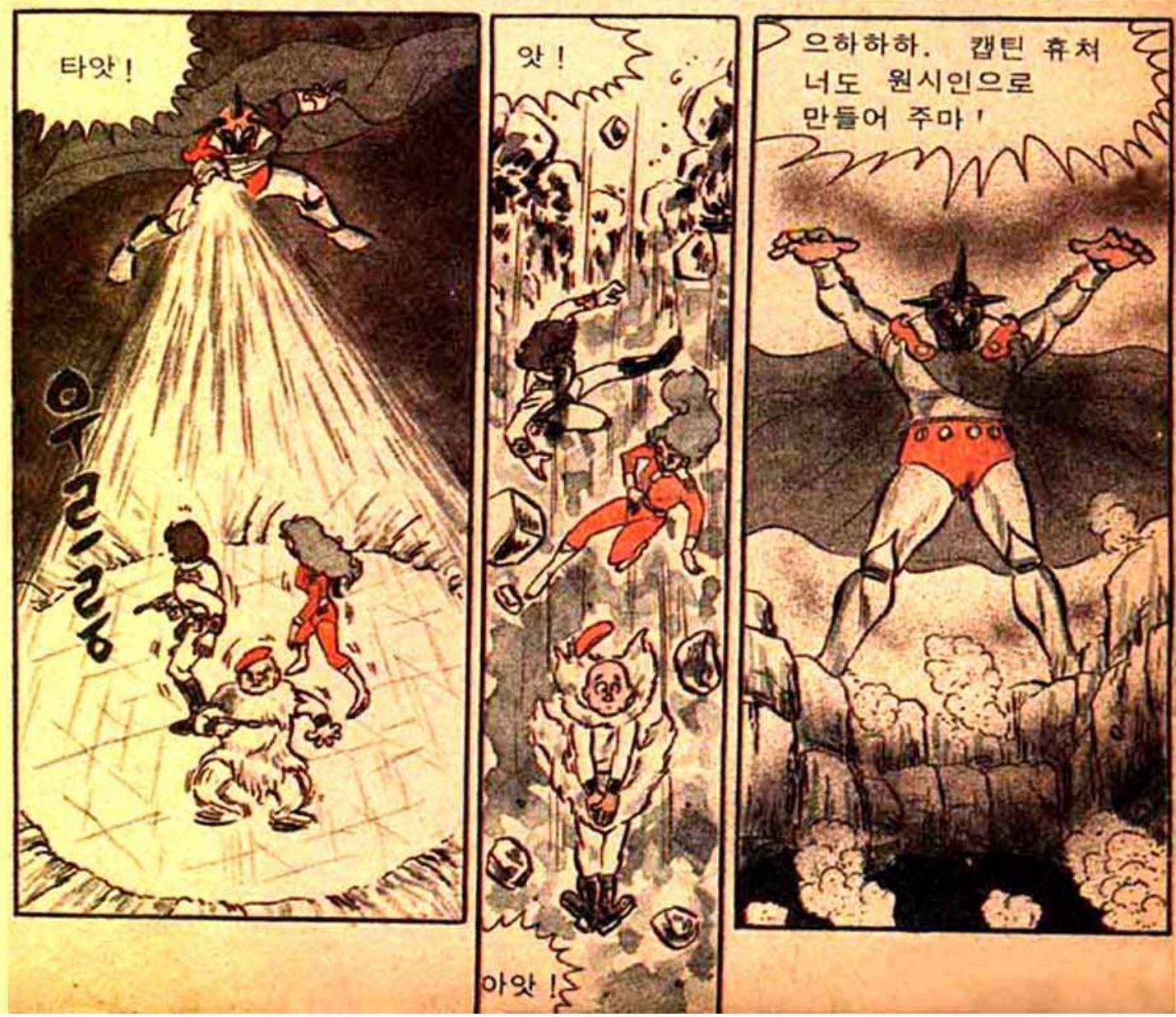
조용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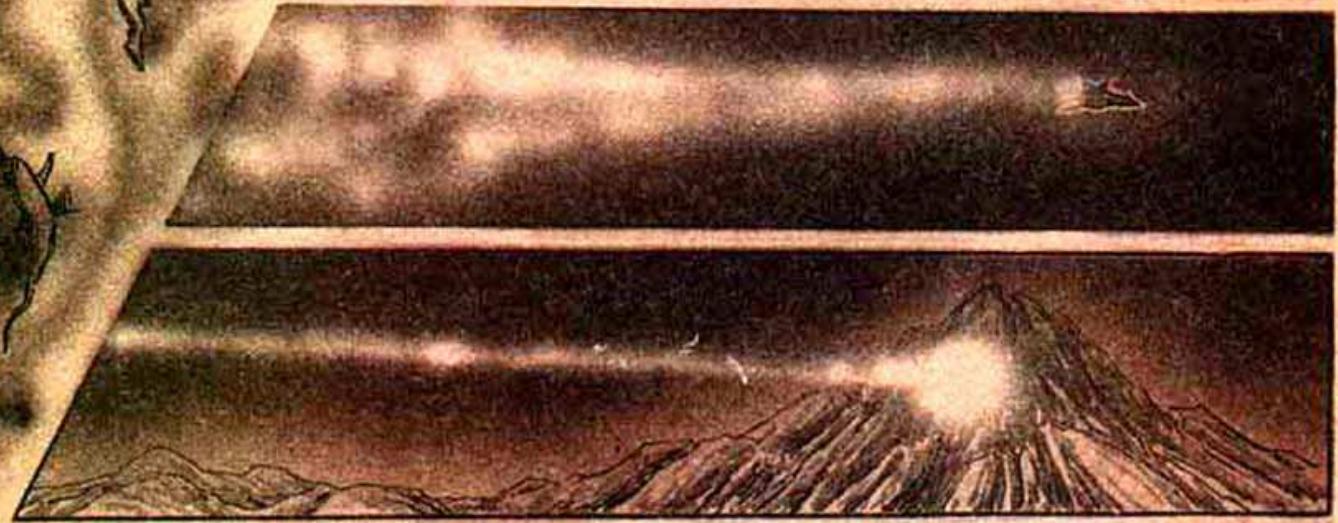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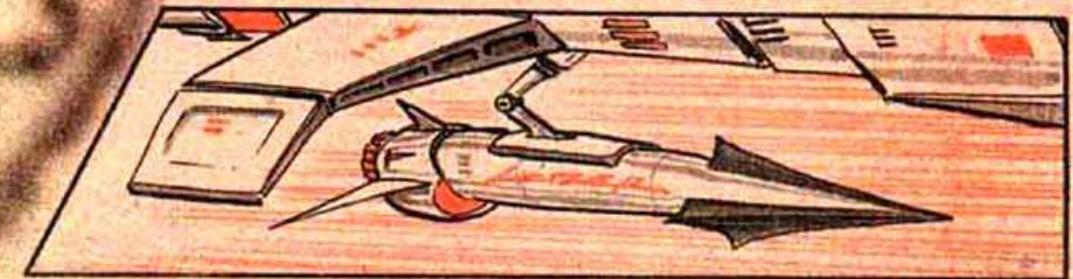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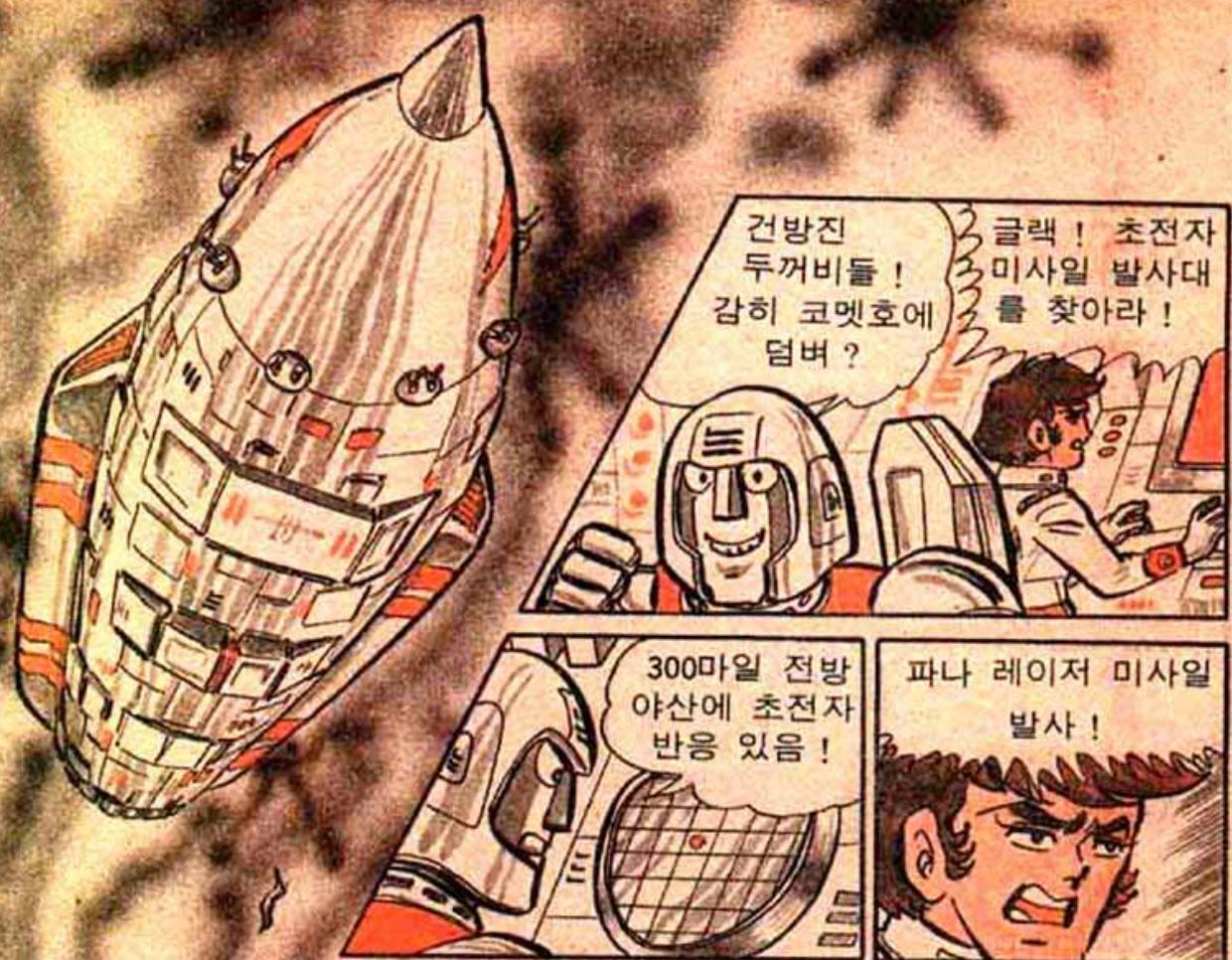
카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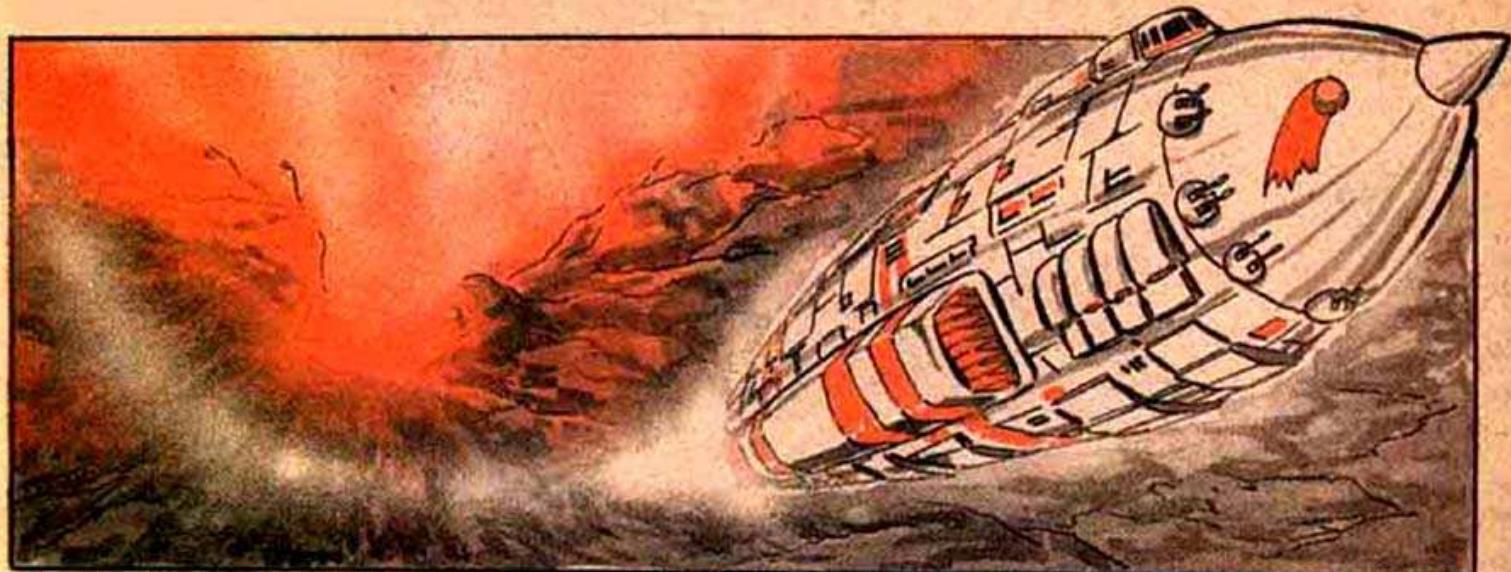
지...지구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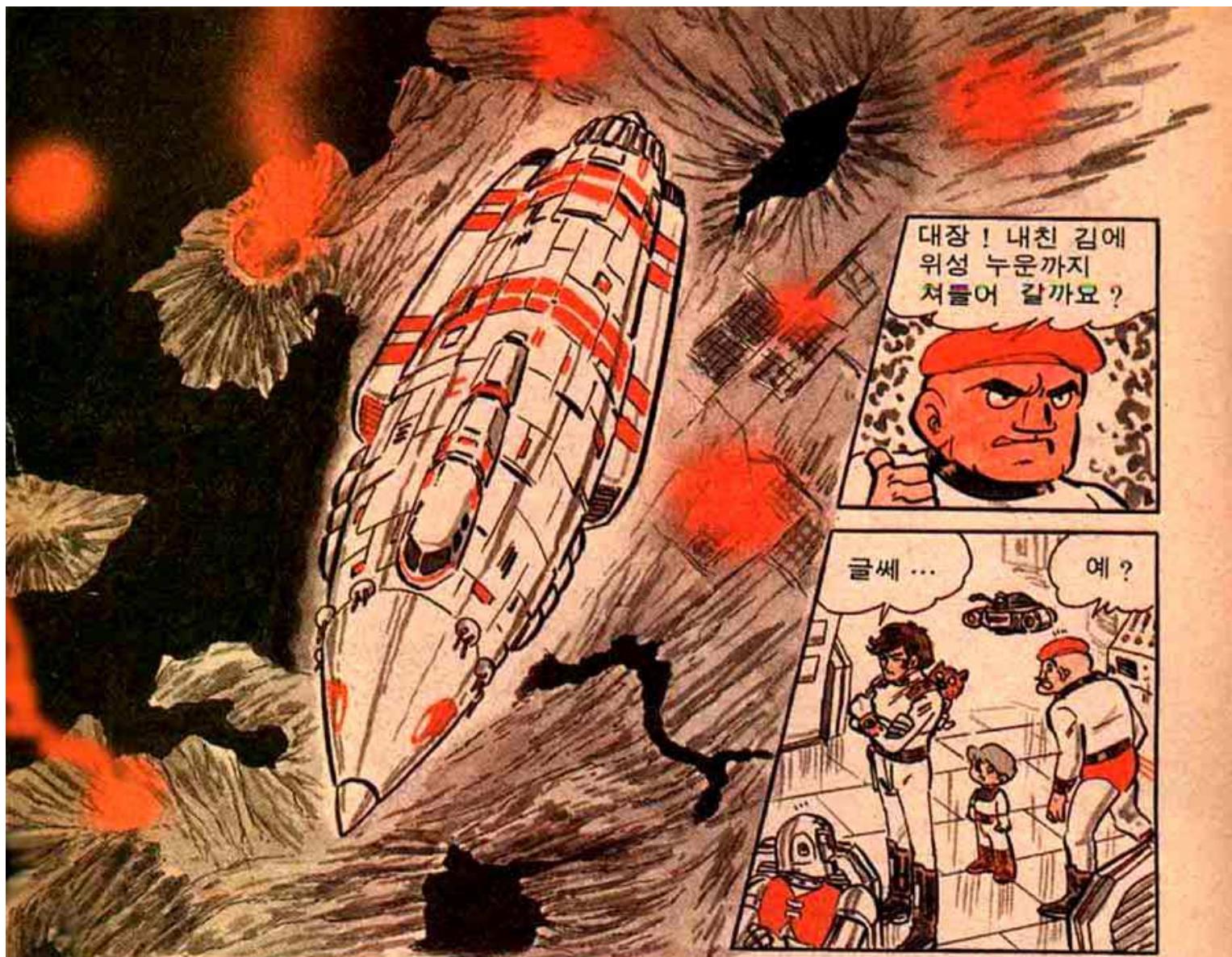
엇!  
벌써 시간이  
다 됐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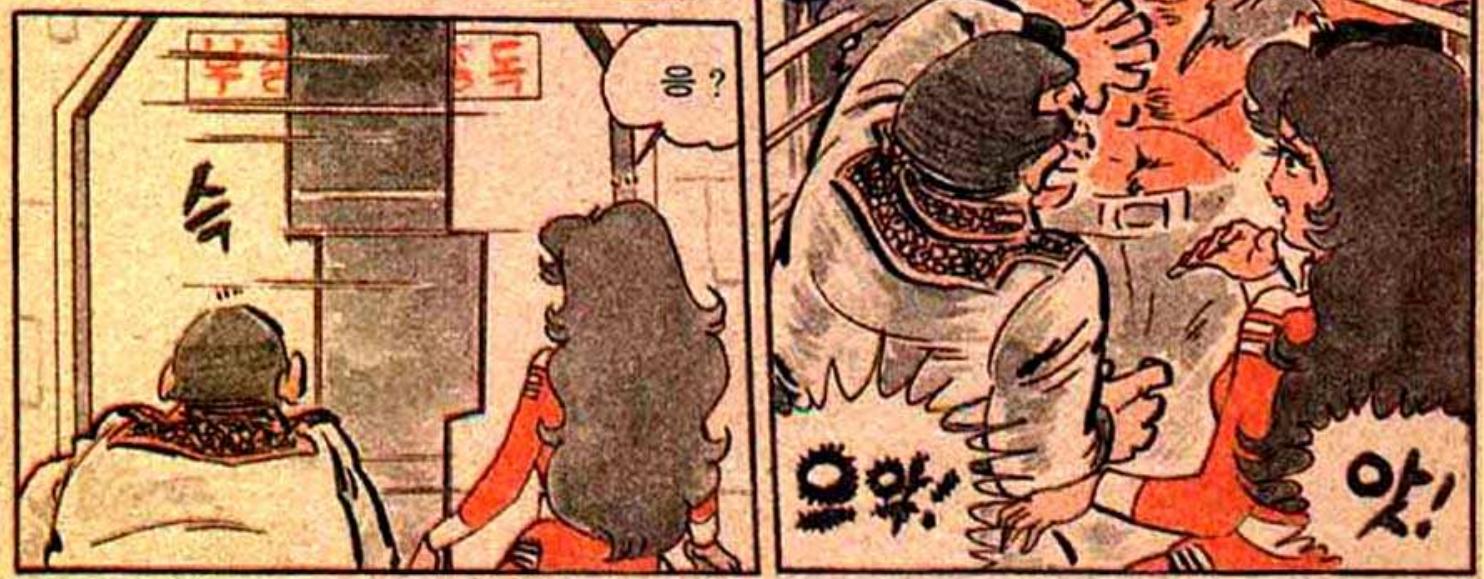












바콘님 문 좀  
열어주십시오 지구인이  
만나보잡니다

바콘?

팝콘?

응!

이야—언제  
만든 건지  
모르지만,  
굉장한 걸  
만들었구나

이니샤인이  
만든 게  
아니야.

맞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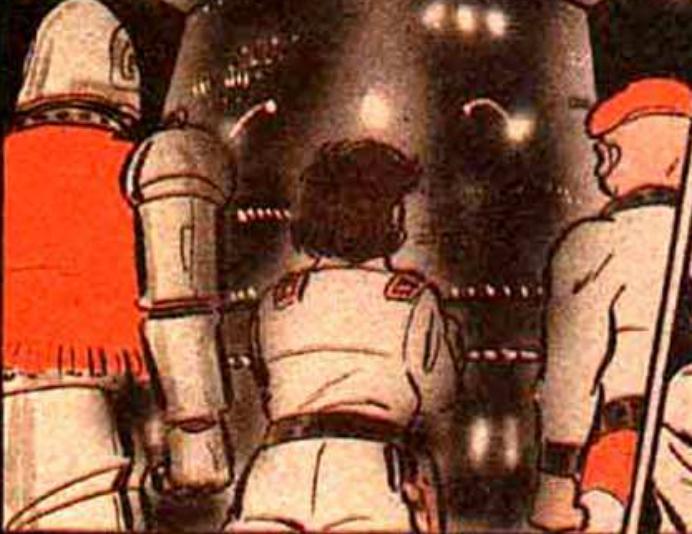
컴퓨터  
이름이었나

오래 전 외계를 탐사하러 나갔다가 돌아오지 않는 분들이 만드셨습니다.

그중 한 분이 돌아오셔서 저는 다시 일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게 나와 같은 지구인이라는 걸 몰랐는가?

그분은 지구인이 아니십니다. 우주의 제왕이 되실 분입니다.



가면을  
쓴 것도  
탐지  
못하나?



어쨌든 그 분은  
제 기억 회로 속에  
있는 모습과  
닮았습니다.



어이없군요.  
큰 컴퓨터가  
저렇게  
돌머리라니

아니지  
간단하지만  
확실한  
방법이야.

그런 것을 잘  
이용해 먹는 자가  
머리가 좋은 거지.

이 정도의  
지하도시가  
있다면 지상에도  
전설 정도는  
남아 있을 거야.

그 전설을  
확인해  
본 게  
틀림없어.



위성 누운도 아마  
이곳에 살던 생물이  
만든 인공위성일거야.  
그러니 자기가 우주  
제왕이 되려는  
마음이 든거야

지구에도 어떤  
보물을 가지면 세계의  
왕이 된다는 전설이  
많이 있거든.

그런데 무기가  
낡아 써먹기엔  
약하니까.  
부르버 공장의  
것들을 탈취한  
거야.

그려면 내부  
사정을 잘하는 자,  
즉 지구인 고위  
층이 아니면  
힘들다는 얘기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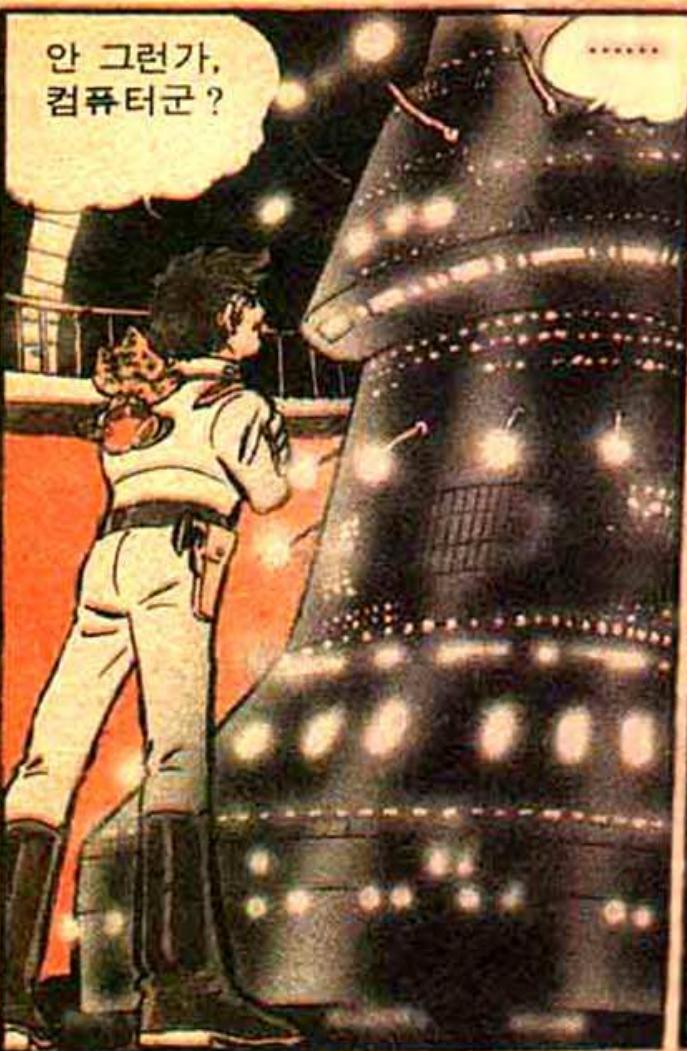
안 그런가,  
컴퓨터군?

저는 단지 명령  
받은대로 행할  
뿐입니다.

어휴...  
고물은  
할 수  
없군 그래.

로봇 따위가 그런  
말 할 자격없다. 난  
우주 최고의  
컴퓨터다.

뭐가 어째!  
이 납땜조각이  
파쇠가 되고 싶어?



으이크!

함부로  
날뛰지 마라!

10보 이내에  
접근하면 너야말로  
파쇠를 만들어  
줄테다.

나까지  
파쇠되는...

못 돌아오기는  
여기 돌아 오셨다네.

너의 주인들은  
꽤나 호전적  
이었던  
모양이구나.

아마도 다른  
별을 침략하러  
갔다가 전멸당해  
못 돌아 왔겠지?



용케도 이 곳까지  
찾아들어왔구나.

진짜 이곳이  
너희들의 무덤이  
되게 해 주마

으하하하 ...

앗 ! 우주제왕의  
패거리다.

바콘 ! 공격해라 !  
저 자들을 흔적도  
없이 만들어라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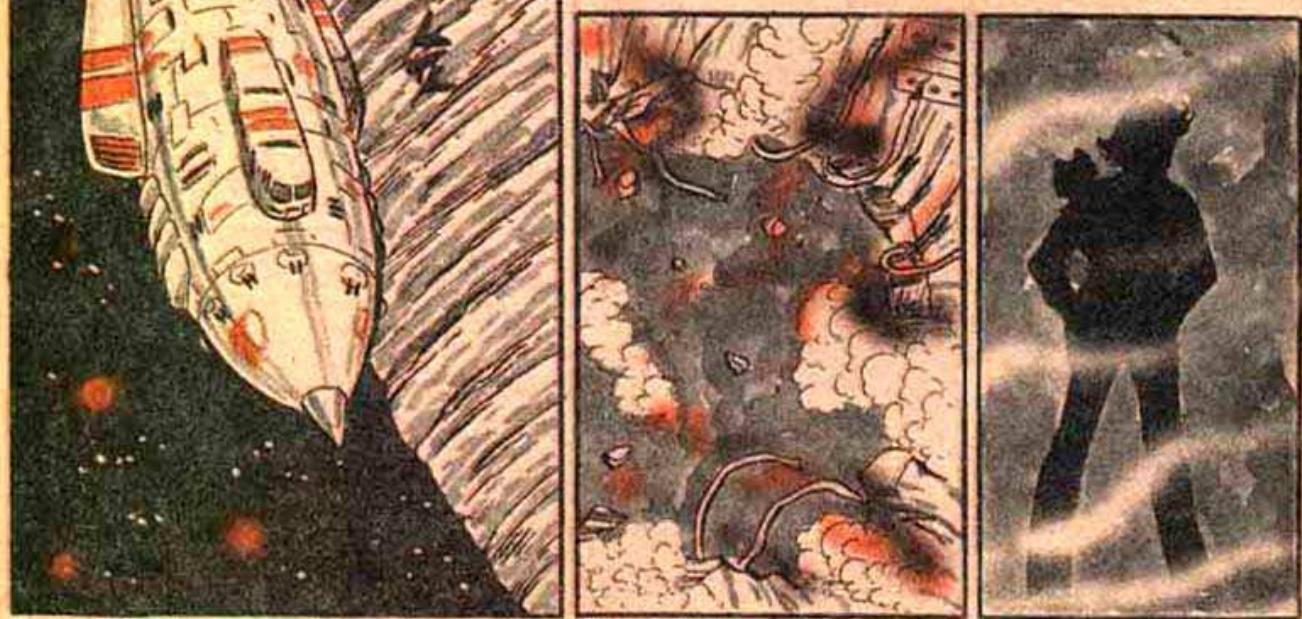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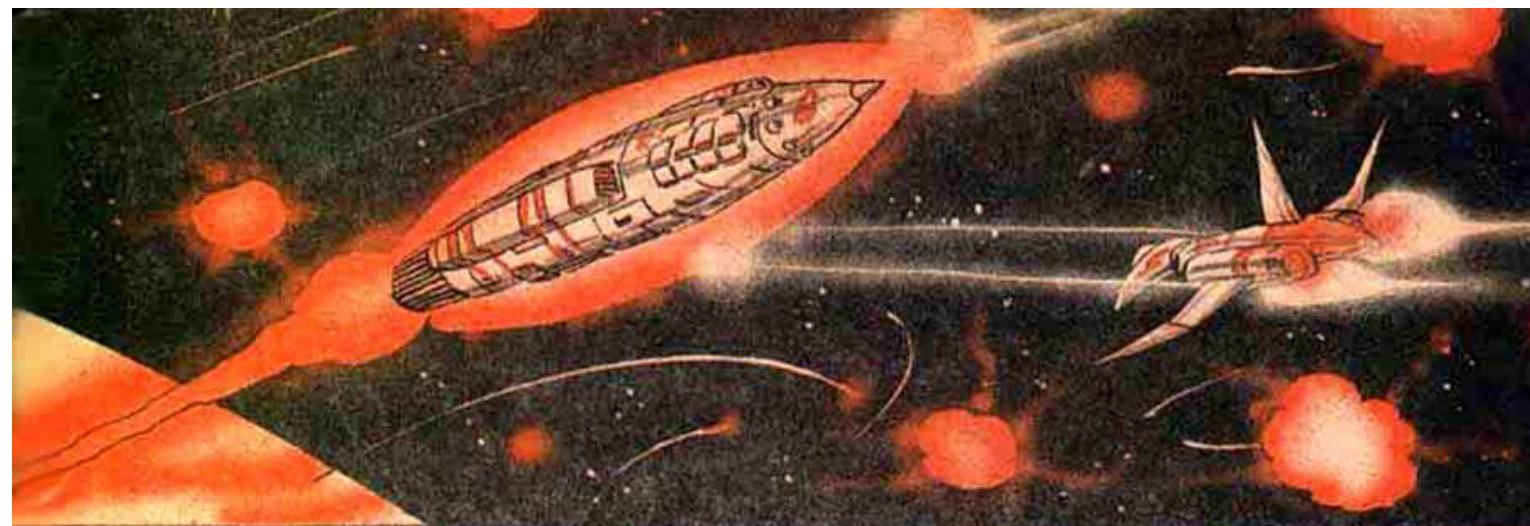
으앗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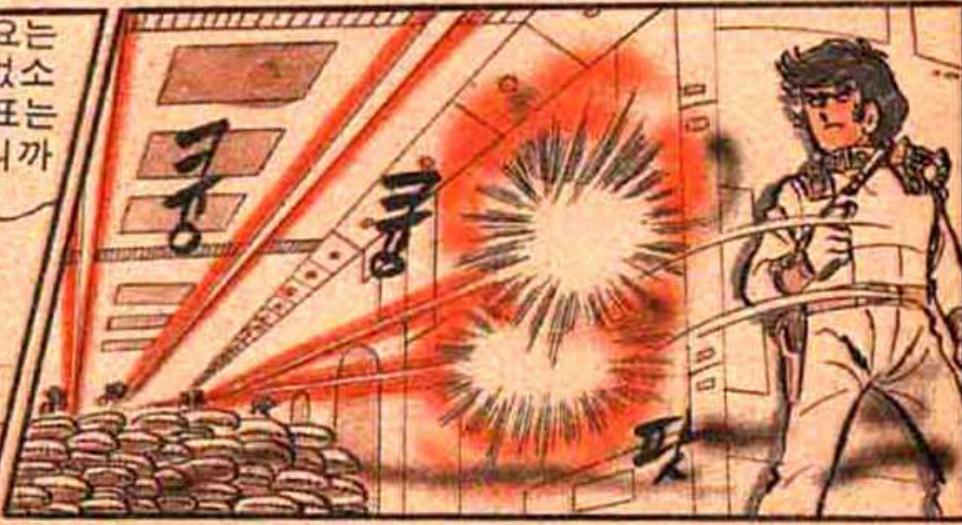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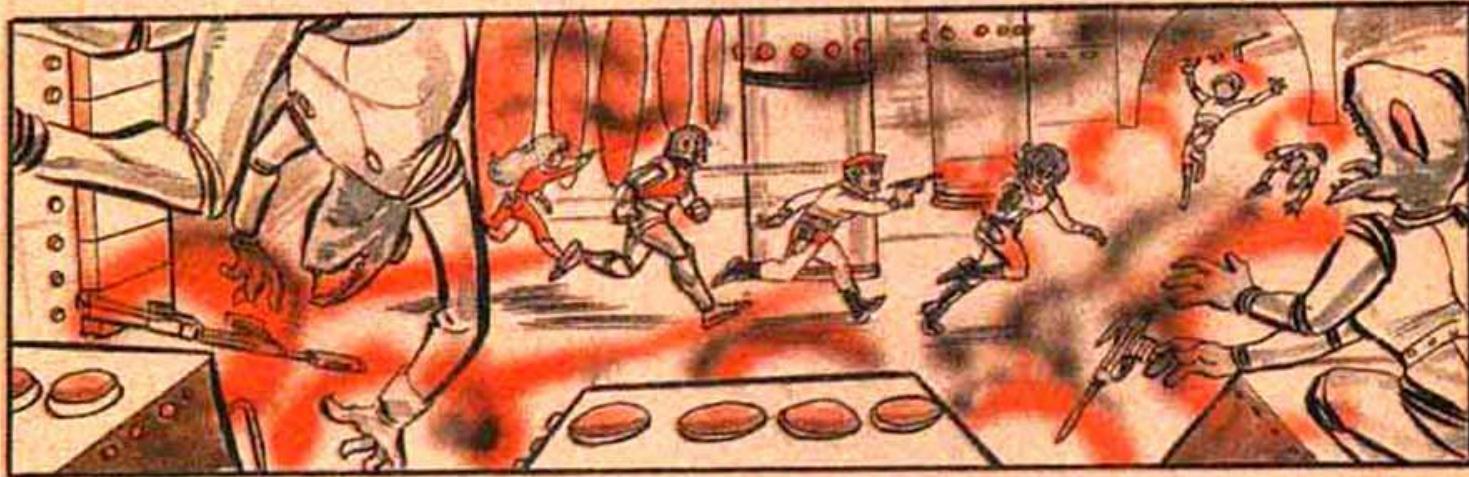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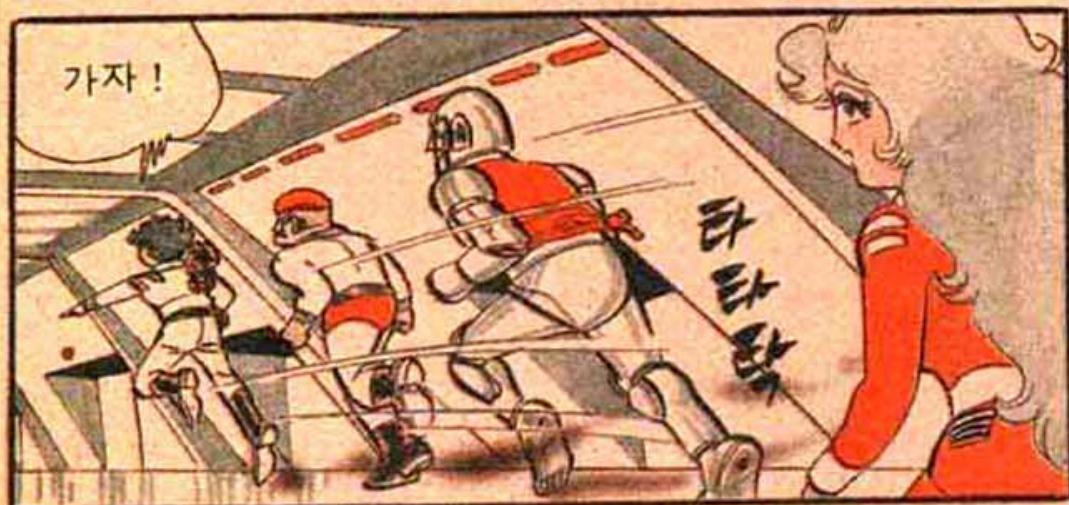
왓 !

빠  
짖  
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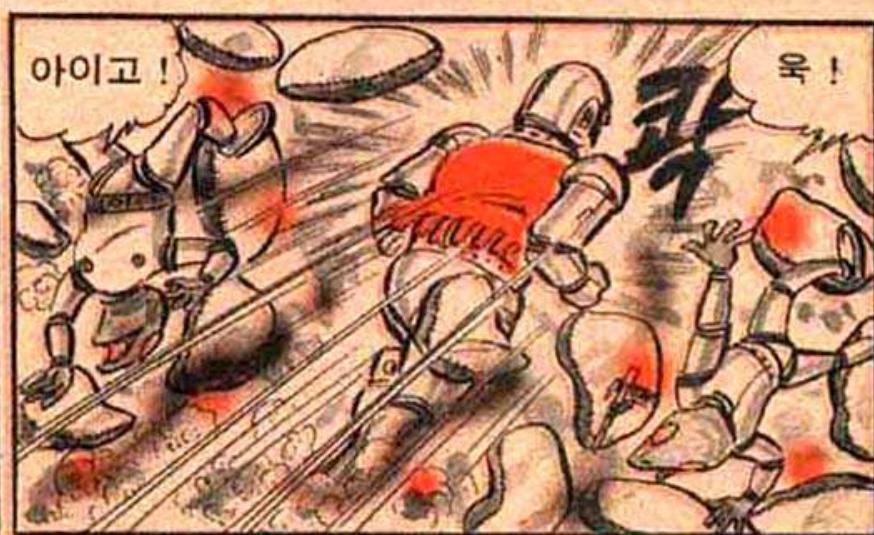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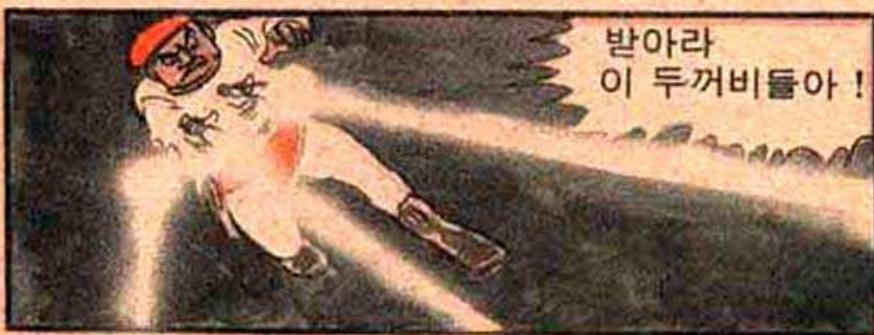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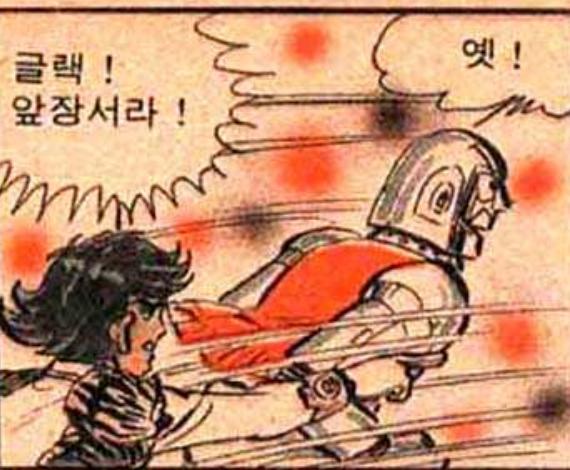
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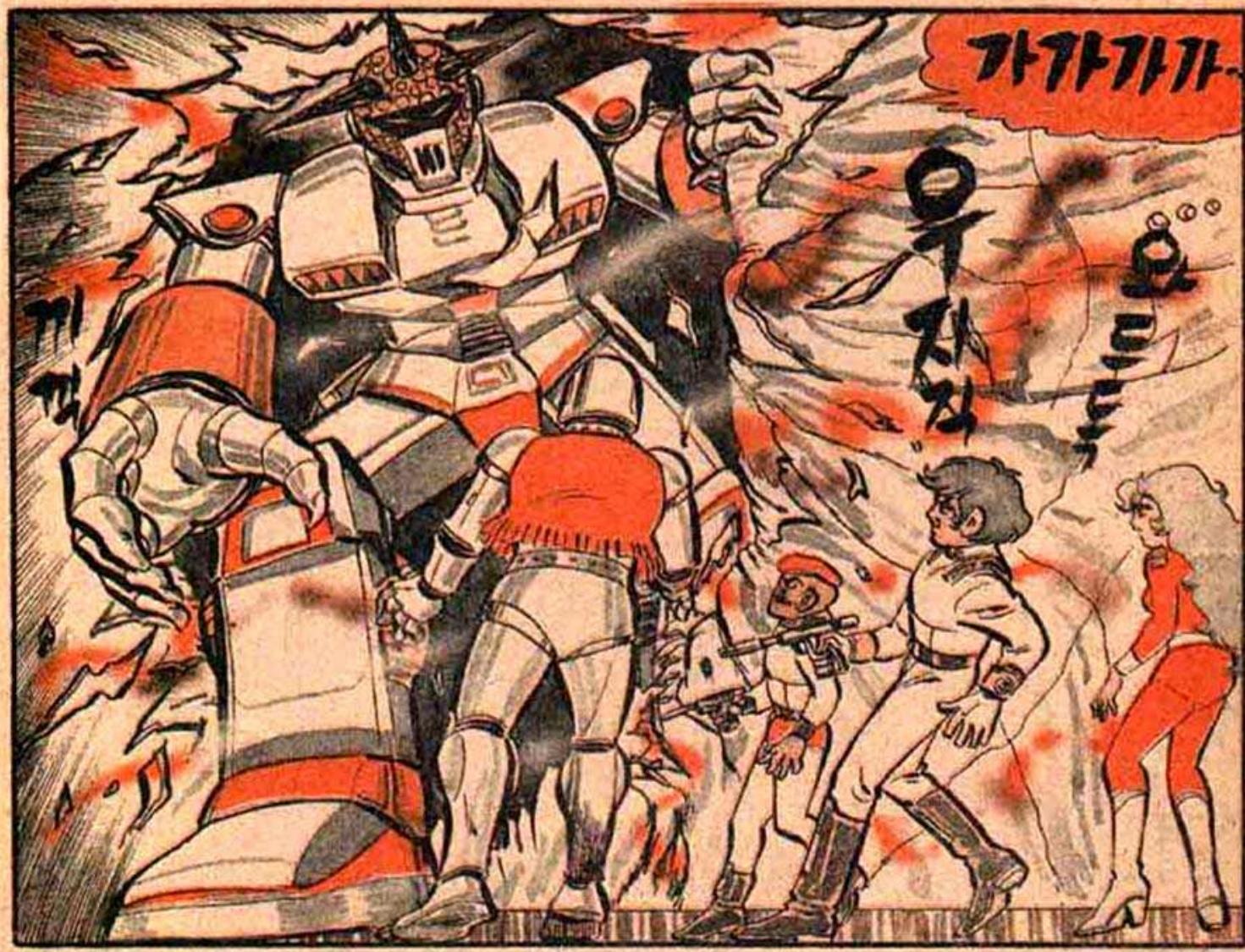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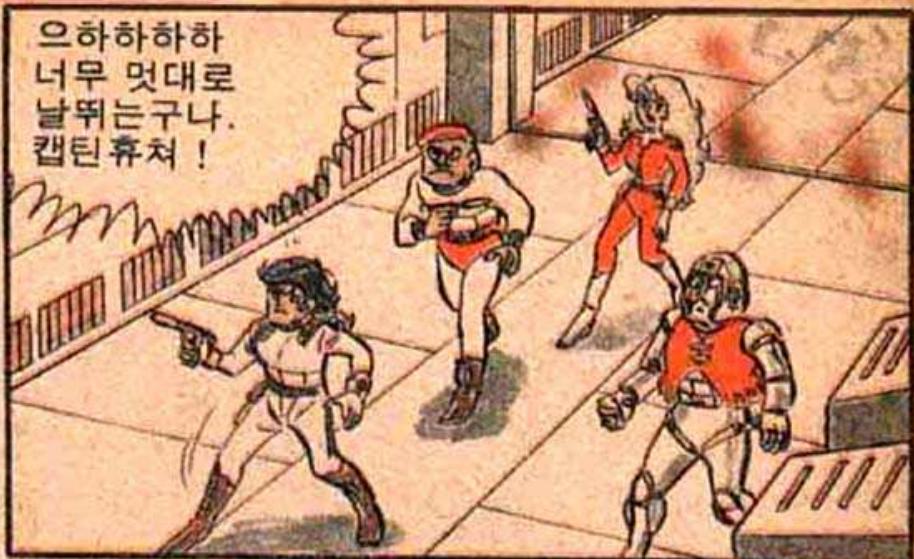
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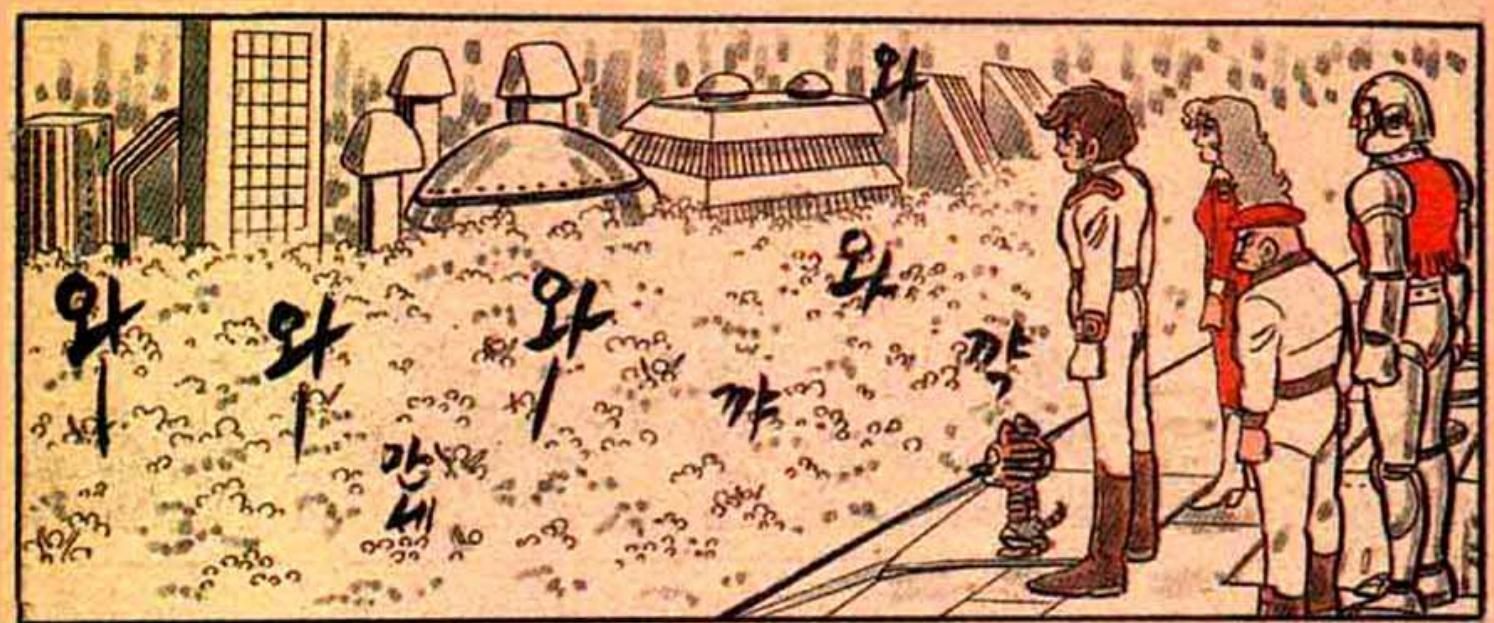


우주 제왕이 있는 곳이  
멀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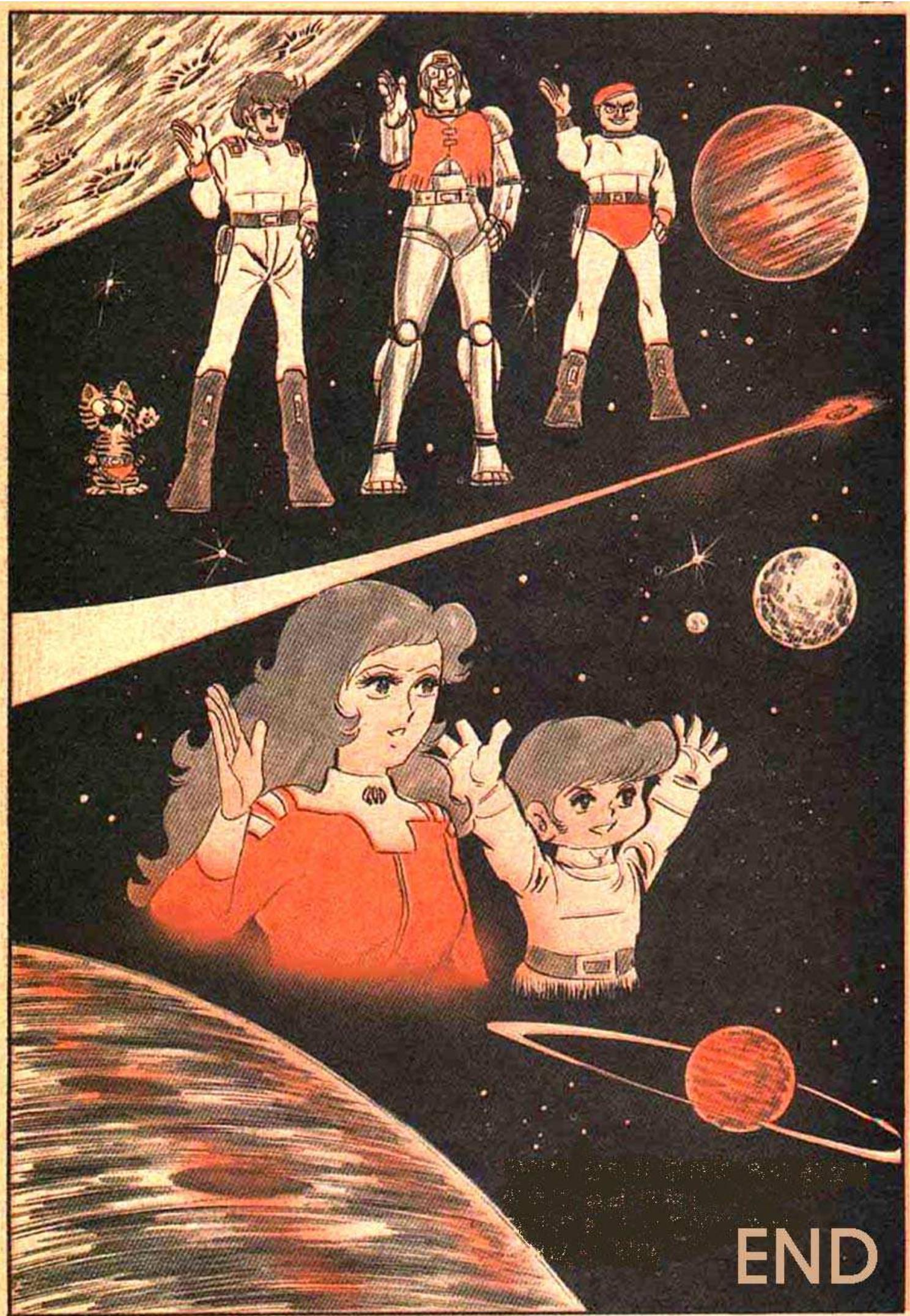












END